

글·사진 : 편집부

# 서울시, 2011서울국제외식산업박람회 성료



① 2011서울국제 외식산업박람회



② 국내산/수입산 농수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음식 향연, '2011서울국제외식산업박람회'가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푸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Food Trust(선진 음악문화 홍보관), U-Food(맞춤 푸드)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마련하여 외식업 관계자,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코너로는, '남은음식 제로운동'을 홍보하는 Food Trust, 식자재 및 기자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관, 외식 기자재관, 우수 식자재관으로 이루어진 Food Industry(푸드 산업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령·특성별 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U-Food(맞춤 푸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발표식품을 소개하는 추드 여행 등을 전시하여 일반 시민과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③세계음식기행 홍보관 ④한국음식업중앙회 ⑤다이어트 식품으로 소개된 '유자청 오리보쌈' ⑥전국 반가(班家)·명가(名家)내림 음식특별전

또한 외국 참관객을 위한 한식세계화관에서는 매일 다양한 한식 시식 코너를 열고, 영어회화가 가능한 통역 서비스요원을 배치하여 한식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위한 한식축제가 없음을 고려, 각종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는 '2011 서울국제외식박람회' 개최를 지원하여 외국인이 다양한 한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한식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 서비스 요원도 배치했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본 박람회를 통해 서울 외식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일반인 및 외국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